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12호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발간

이석무 이데일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 무리한 훈련·체중조절 안돼” ...인권위, 교육부장관에 의견표명

유민주 뉴스기자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한체육회, 4년 만에 한일 스포츠 교류 재개

장현구 연합뉴스기자

### 세계육상연맹

세계육상연맹, 트랜스젠더 선수 여자부 출전 금지

박애리 데일리굿뉴스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

훈련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학생선수 위해 ‘스포츠택시’ 운영

조영석 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대학운동부의 인권친화적 운영 가이드를 담은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KUSF는 “대학운동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며 “대학운동부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와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스포츠인권 지침이 폭력 및 성폭력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스포츠에서의 권리보장, 평등, 차별 해소 등 보다 폭넓은 스포츠인권 분야를 다루고 있다.

중점 내용으로는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스포츠 지도자, 체육행정가별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 ▲행동강령, ▲스포츠에서의 (성)폭력과 괴롭힘 예방 및 보호, ▲스포츠에서의 권리보장 및 평등 실현 등으로 구성돼있다. KUSF 128개 회원대학의 체육부 등 운동부 담당 부서, 인권센터,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대학운동부의 인권친화적인 문화개선을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도 점차 확대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중에 총 120회에 걸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중 참여형 스포츠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가자 대상에게도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계획이다.

KUSF 이종현 사무처장은 “대학스포츠 인권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KUSF 회원대학 운동부를 넘어 전국 대학운동부의 인권친화적인 스포츠문화 환경 조성에 KUSF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학생선수, 무리한 훈련·체중조절 안돼” 인권위, 교육부장관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체육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등이 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육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이 무리한 훈련과 지나친 체중조절 등 종목 특성과 결부된 문제로 인해 부상·피로 누적·성장·발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대한체조협회장에게 지난 16일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체육중·고등학교는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특수목적학교다.

앞서 인권위는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난 2019년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또한 이듬해인 2020년 전년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 체조 등 10개 종목을 선정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기계체조 선수를 육성하는 6개 체육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당 종목 학생선수들의 훈련 및 생활환경을 조사했다.

인권위는 "체육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선수들의 성장·발달 단계 및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즐기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훈련체계와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수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인 생활공간이자 휴식과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다인실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기숙사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생활규칙, 규율·관례 등을 점검하여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체육회, 4년 만에 한일 스포츠 교류 재개

대한체육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한 한일 스포츠 교류를 4년 만에 재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한일생활체육교류 사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공동 개최를 계기로 1997년 시작돼 국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민간 차원의 국제 우호 증진에 기여해 온 사업이다.

매년 양국 동호인 선수단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일본스포츠마스터즈대회에 상호 초청·파견하는 형태로 진행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019년 제23회 교류 이후 중단했다.

체육회는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4월 27~30일·경상북도 일원)을 정상 개최함에 따라 한일생활체육교류 사업도 재개해 4년 만에 한일 스포츠 교류의 물꼬를 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또 매년 양국 5종목 218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가 대면 교류로 전환하는 것을 기회로 지역별·종목별로 후속 교류가 추진되도록 지원을 확충하고 전문 체육 분야의 한일 우수 청소년 교류 사업(14종목 692명·한일 각각 346명 규모)의 확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논의해 갈 참이다.

# 세계육상연맹, 트랜스젠더 선수 여자부 출전 금지

세계육상연맹(WAC)이 여자부 경기에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을 금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웨덴에 본부를 둔 WAC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보낸 성전환 선수를 여자부 국제 대회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며 "새 정책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여성 범주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여성 선수들을 위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간 회원 연맹, 세계육상코치아카데미, 선수위원회, IOC를 비롯해 대표적인 트랜스젠더·인권단체 등 다양한 단체와 협의 기간을 가졌다"며 "성전환 선수의 출전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실무단을 꾸려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WAC는 성전환을 하지 않았으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여성 평균보다 높은, 이른바 'DSD'(Differences of Sexual Development·성적 발달의 차이) 선수들에 대한 출전 기준도 강화했다.

WAC는 모든 여자부 종목 출전 규정에 대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최소 24개월간 2.5nmol/L 미만으로 유지한 경우로 한정했다.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0.12~1.79nmol/L, 남성은 7.7~29.4nmol/L이다.

다만 DSD선수가 400m 미만이나 1마일 초과 종목에 출전할 경우 테스토스테론을 2.5nmol/L 이하로 유지하는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적용한 '유예 조치'를 따르게 했다.

WAC 세바스천 코 회장은 "여러 집단 간 권리와 요구가 충돌할 때 결정이 항상 어렵지만 다른 무엇보다 여자 선수들에 대한 공정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남성으로 살아온 이력에 따른 이점과 경기력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남성으로 태어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의 여자부 출전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스포츠에서 포용과 공정성이 충돌할 때, 나는 늘 공정성 편에 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표적인 DSD 육상 선수인 캐스터 세메냐(32·남아프리카공화국)는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올림픽 여자 육상 800m 경기 금메달을 땀다. 하지만 이후 체내에 자궁과 난소가 없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 훈련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학생선수 위해 '스포츠택시'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이 학생 선수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스포츠택시'를 운영, 지원한다.

전남교육청은 훈련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학교운동부 학생 선수들을 위해 '스포츠 택시'를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스포츠 택시'는 훈련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 선수들을 직접 찾아가 집까지 배려해주는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장흥 대덕초 소프트테니스부 학생선수 5명에게 '스포츠택시' 2대를 지원한데 이어 점차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장 이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19교에 차량 임차비 4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운동부 차량임차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감소를 통해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현 전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학생선수가 학교버스나 에듀택시로 귀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나아가 인권교육 및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안전한 학교운동부 구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 비기너, 의욕 앞서다 '뼈'아픈 부상당할수 있어 주의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5526635547256&mediaCodeNo=257&OutLnkChk=Y>

유소년 축구선수 죽음 10개월 지나서야... 김포FC, 고인·유족에 뒤늦은 사죄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남시대]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22520079?OutUrl=naver>

세종 연고 이스포츠단 울트라세종 탄생... 갤럭시이스포츠와 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028000063?input=1195m>

부산 한마음스포츠센터 4월부터 '장애인 전용시간대' 운영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7\\_0002241581&cID=10811&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7_0002241581&cID=10811&pID=10800)

스포츠에서 정신력을 보여준 NBA 레전드 윌리스 리드 [문상열의 부시리그]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00290?ref=naver>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 보은군 삼승행복센터, 스포츠교실 운영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554>

올봄 라켓 스포츠 '테니스' 뜬다...발맞추는 패션업계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99226>

대한당구연맹, 양구군스포츠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http://www.stoo.com/article.php?aid=86199387531>

울산시체육회, 공업축제 기간 근로자스포츠한마당 추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5256&ref=A>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